

기관 절개술의 재고- 수평 연골사이막절개를 이용한 새로운 유소아 기관절개술 및 중환자실에서의 기관절개술

서울대학교 이비인후과학

하정훈* · 최익준 · 박경태 · 성명훈 · 김광현

목적 :

유소아 기관절개술은 적응증 및 대상 연령층의 변화로 수술 후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수술방법이 제시되었다. 기관 연골을 수직 절개하는 기존 방법은 기관 연골의 영구 손상을 초래하거나 육아종 형성이 많은 단점이 있어, 수직 피부절개 및 수평 연골사이막절개 술식을 고안하여 지난 2년간 유소아 환자에게 적용하였다. 중환자실에서의 기관절개술은 기존의 방법이 중환자실 넓은 침상의 넓이로 인하여 보조 수술자에게는 자세의 불편함 및 심한 체력소모를 야기시키는 단점이 있어서 이를 개선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방법 :

2005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이비인후과에서 수직 피부절개 및 수평 연골사이막절개 술식을 이용한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환자 6세 이하 28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에 대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중환자실 기관절개술은 심폐소생술 보드(CPR board)를 이용하여 환자의 몸을 침상 위로 올려 보드 위에 두부를 위치 시키고

경부 신전을 통해서 머리 양측에 수술자와 보조자가 위치하여 시행하였다.

결과 :

대상 환자 28명의 평균 연령은 15.1개월(2주~6세)이었고 평균 체중은 6.4 kg(1.3kg~18.2kg)였다. 남아가 18예, 여아가 10예였다.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적응증은 장기간 인공호흡기 유지가 15명(57.1%), 상기도 폐쇄가 11명(39.3%)였다. 기존의 수술방법에 비해서 육아종 형성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었다.

결론 :

소아 기관절개술에서의 새로운 기관절개 방법은 장기간 기관절개 캐놀라를 유지해야 하는 유소아 환자들에게 있어서, 기관 연골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육아종 형성 등의 합병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술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심폐소생술 보드를 이용한 기관절개술의 방법은 기존의 방법에 비하여 훨씬 뛰어난 시야 확보가 가능하였고 예상치 못한 수술 시간연장에도 더 편안한 자세에서 수술을 할 수 있어 정확한 술기를 가능하게 하였다.